



유로존 붕괴론 대두

이정환 선임연구원

- 유로존의 채무위기가 부채 및 신용위기로 불거진 미국발 악재를 만나 유럽계 은행의 자본건전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면서 금융위기로 확산될 조짐을 보임.
 - 미 연준은 8월 20일 유럽계 은행의 자금조달 능력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였으며, 일부 은행에 대해서는 미국 내 사업구조를 재정비하도록 압박함.
 - 전문가들은 유럽계 은행들의 자금난 징후가 포착되고, 자금 조달 금리비용도 올라가고 있다고 분석함.
 - 유럽 은행들의 리보금리(런던 은행 간 금리)가 6월 중순 0.245%에서 8월20일 현재 0.303%로 꾸준히 상승함에 따라 은행의 차입 부담이 커짐.

- 앨런 그린스펀 前 미 연준 의장은 8월 22일 유로 은행시스템의 문제점 노출로 유로체제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로 인해 유로존의 붕괴¹⁾ 가능성도 커졌다고 경고함.
 - 유럽중앙은행은 주변부 국가의 재정위기가 나타나자 이들 국가의 국채를 매입하는 한편, 채권을 보유한 은행들에게 담보물 대신 자금 대출을 공급하는 방법을 통해 유럽 은행들의 신용경색을 완화시켜 줌.
 - 그러나 안정적인 담보물로 인식되던 유로 표시 채권이 갈수록 신뢰를 잃게 되자 유럽 은행들의 자금 조달 능력이 의문시되면서 유럽 은행시스템의 문제점이 노출됨.

- 유로체제의 안정성은 유로존 위기 해결방안의 현실성 부재와 각국 수장들의 문제 해결 리더십 등이 의문시되면서 흔들리는 모습이며, 독일 등에서는 유로체제 존속에 대한 반대의견이 점차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1) 유로존 붕괴는 그리스, 스페인 등과 같이 재정위기를 겪거나, 또는 독일 등과 같이 재정이 건전한 국가가 유로체제에서 이탈하고 자국 통화로 복귀하는 것을 의미함.

- 정례회의로 국한된 공동경제위원회가 유로존의 위기를 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대두됨.
- 유로존 공동채권 도입은 유로존 위기 해결의 핵심 사안으로 떠올랐으나, 국가 간 이해상충으로 협상이 부진한 상황이며, 이 과정에서 독일의 리더십이 비판을 받음.
 - 독일 총리는 현 시점에서 유로존 공동채권 도입이 유로존 위기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동 채권도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유로존의 위기는 각국이 부채를 감축하려는 의지와 경쟁력을 높이려는 노력에 의해서만 차단될 수 있다고 주장함.
- 실질적으로 유로존 공동채권 도입을 좌우하는 독일에서 유로체제 존속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나타나면서 유로체제의 안정성이 흔들리는 모습임.
 - 독일의 여론조사는 독일 국민의 다수가 유럽의 다른 나라에 대해 구제금융을 지원하는데 대해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힘.
 - 집권 연정내각 의원들은 그리스에 대한 추가지원을 저지하기 위해 독일의 EU 구제금융 분담금을 제한하는 입법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짐.

(Bloomberg 8/20, Wall Street Journal 등 8/24)